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 ♥ 시편 128:1~4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들은 재물, 어떤 이들은 성공,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나 명예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복이다. 가정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가정이 불안과 문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명절

추석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미국이 드러지는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따로 드려 지키지만, 사실은 추석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의 수고를 기리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햇곡식과 과일, 풍성한 열매는 우리의 손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덕분입니다.

둘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가정의 복을 강조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정직한 땀방울을 귀히 여기시며,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터전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증거입니다.

셋째, 세상 복보다 귀한 경외의 복

사람들은 추석마다 건강, 성공, 재물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128: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 갈 때, 우리는 세상 복을 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인도하신 그 섭리를 감사하며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이 내 자녀를 비롯한 다음세대에 흘러가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 송 가 559 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 렬 고 마 워 라 임 마 누 엘 예수 만 섬 기 는 우리 집
고 마 워 라 임 마 누 엘 복 되고 즐 거 운 하루 하루

기 도 말 은 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복 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128:1~4 다 같이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 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 말 은 이

찬 송 찬 송 가 31 장 다 같이

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2.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 없이 크셔라
3.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후 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 기 도 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